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또 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년과 조국해방 7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케냐, 케르키즈스탄아일랜드 지도자, 《미르키즈 알》 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의 위원장, 도이쉴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모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스위스공산당 총서기,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키메루지제인민혁명 총서기, 페루근로자당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또한 이란이슬람교혁명당 부총서기, 이집트아랍공화국 부총리, 세계평화회의의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 리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소의 국제연합 총서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합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네팔, 만다, 몽골, 중국, 쿠웨이트, 이란, 도이쉴란드, 로모니아,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프랑스, 벨스카,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앙골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의 정세, 사회적, 경제계의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소, 조선통일지도 및 선진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8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려왔다.

그들은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세계 자주화위업의 완성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거대한 업적을 인류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행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만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멸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선군정치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편전 면승으로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디.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명도하에 주체의 령강국, 대륙간탄도로켓 보유국으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있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결사의 각오로 충만하여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고 자기 위업의 승리를 확신하며 투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힘을 당당히 세상에 알리시디.

김위원장님께서는 《페루조선전선 만세!》, 《형제적조선인민과의 면대성 만세!》, 《단결된 조선인민은 승리한다!》라는 구호를 호창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위업의 최고령도자 이시며 재일조선여성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꽃길에도 뽕고깃줄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사회의주의조국을 방분하였던 제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 성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며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일본전쟁의 결성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저희들은 주체적해외로코녀성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시며 재일조선여성들의 참다운 삶의 은인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하시는 사회주의조국의 즈음으로 달리는 마음을 진정할줄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시었습니다.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건만도 더없는 영광이건만 우리 수령님들께서 남달리 아끼고 위해 주시던 재일동포녀성들이 조국에 왔다고 속속으로 원히 정해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소같은 은총을 우리 이제 친년이고 만년이고 간들 잊을수 있었겠습니까.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때라 친정아버지의 다정한 정을 부여주시며 꿈에도 바라볼수 없었던 영랑의 절정에 내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저희들은 이땅에서 쌓이고쌓였던 만사들을 풀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찬 조국방문의 나날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제 녀성동맹 일꾼들과 동포녀성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삼가 머리숙혀 큰절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속

에 똑같이 흘러간 어린 조국방문의 나날에 저희들은 한생토록 잊지 못할 함으로 귀중한것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체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그리고 조선혁명박물관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분들을 수령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며 두정하여왔는가를 다시금 심장같이 절감하였습니다.

뜻깊은 재류의 나날 저희들은 대륙간탄도로켓 도량학을 수호실험에서 완전성공한 대경사를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면서 온 세상 이 우리의 칭송하는 원하제일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평양가방공성, 금강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지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을 비롯하여 미 단원들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조국의 버린 현신속에 태동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해돋이를 기쁘게 그려볼수 있었습니다.

정녕 고결한 총정과 승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진실을 끊임없이 수놓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인민의 은혜로운 태양이시디.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성다해 받들어모시는 길에 주체혁명위업, 총애애국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조국방문의 나날에 더욱 심장같이 쏘아박은 역사의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저희들은 이 불편의 신념을 과우명으로 새겨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일관 단심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성장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의 자랑찬 역사를 총정하고 애국의 단대기로 영원히 빛내어나가겠습니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은 주체의 사상체계, 명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 애국애국의 성불로 반성같이 다지고 모든 동포녀성들을 사회주의조국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열렬충녀들로 든든히 준비시켜 총애애국위업의 한복속매바라볼 더욱 믿음직하게 떠밀어나가겠습니다.

새 세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녀성들을 망라한 대공운동을 왕성하게 밀려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뜻깊이 지키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원하제일본인 민족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우리의 아발랄, 손자, 손녀들이 총정의 바통, 애국애국의 계투봉을 역세게 이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맑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만리마선구지대회를 향한 조국인민들의 전민총동적전에 발걸음을 맞추어 백두산현제일강국건설에 불심방면의 애국지성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김세위원의 손길아래 더욱더 강성민영할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그려보며 이역의 애국초소를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선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제 106 (2017)년 9월 12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 성원일동 올립니다.